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21. 4. 30.(금) / 총 3매(본문3)	
<b>담당 부서</b>	디지털 도로팀	<b>담당자</b>	• 팀장 이성민, 사무관 장유진, 주무관 김강산 • ☎ (044) 201-3928, 3935
<b>보 도 일 시</b>		2021년 5월 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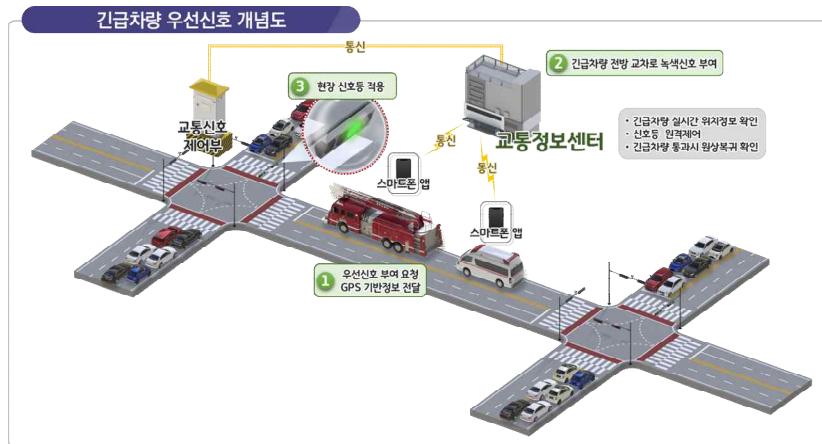
## 교통량 실시간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신호 보내는 ‘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’ 전국으로 확대 구축합니다

- 평균 지체시간(41%) · 신호위반(36%) · 긴급차 통행시간(40%) 감소효과
- 올해 감응신호(403곳) 긴급차 우선신호(372곳) · 스마트교차로(1,224곳) 구축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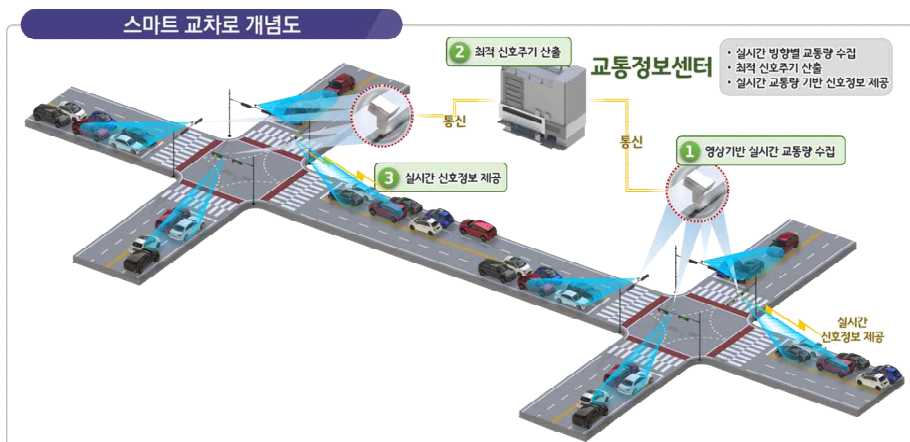
- 정부가 5월부터 전국 주요 국도 및 도시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‘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’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교차로 소통개선 및 사고감소 효과가 큰 ‘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’을 전국 주요 국도 및 도시부에 확대하는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.
-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은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를 최적으로 제어해 정체를 최소화하여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,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등 ‘교통체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똑똑한 신호운영체계’를 말한다.
  - (감응신호) 평상시에는 주도로의 통행 신호를 우선 부여하고, 부도로의 좌회전 차량을 감지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소통상황의 개선과 신호위반 감소에 효과가 있다.



- (긴급차량 우선신호) 긴급차량의 목적지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여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여 사고처리 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가 있다.



- (스마트 교차로) 교차로의 방향별, 차종별 정보를 추출하여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여 실시간 반영하는 방식으로,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(첨두시, peak time)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큰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.



-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감응신호시스템 509개소('15~), 긴급차 우선 신호시스템 44개소('18~), 스마트 교차로 746개소('18~)를 추진하였고,
  -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**교통소통 향상, 신호위반 감소** 등에 **가시적 효과\***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  - \* (감응신호) 평균 녹색 신호시간 22.% 상승, 지체시간 41% 감소, 신호위반 36% 감소 (긴급차 우선신호) 긴급차 통행시간 20~60% 단축 (스마트교차로)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(첨두시, peak time)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큰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
-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**신호운영체계 개선**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.
  - 특히, 올해에만 전국 국도 및 지자체 403개소에 감응신호, 19개 지자체 372개소에 긴급차 우선신호, 31개 지자체 1,224개소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.
  - 아울러, '국도 감응신호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연구'를 통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신기술 도입, 국토부·지자체·경찰청 등 기관 간 협업체계 개선을 통한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빅데이터·센서·통신기술을 접목한 ‘스마트 신호운영체계’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”면서,
  - “이처럼 국민체감효과가 큰 스마트 신호시스템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, 지능형교통체계(ITS,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 사업에 인공지능(AI)·첨단센서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팀 장유진 사무관(☎ 044-201-3928), 김강산 주무관(☎ 044-201-39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